

“코로나 전제 수능 시나리오 준비”

김승환 전북교육감 확대간부회의... 공직자 ‘청렴성’ 재차 강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올 가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 대학수능능력시험 시나리오 준비에 착수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학수능능력시험이 치러질 수 있다며, 이에 맞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수능일은 다가오는데 그때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공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자체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빈약해

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를 짜야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이 미리 준비해 놓으면 전국적 차원의 대책이 없어 우왕좌왕할 때 우리 것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중국 역사에 청백리로 길이 남아있는 회계태수 홍규를 예로 들면서 공직자의 청렴에 대

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홍규가 태수 자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 나룻배 하나를 얻어 타게 됐는데, 사공에게 부탁해서 나룻배에 흙을 실었다. 나룻배에 흙이 실리면서 배가 물 속으로 가라앉게 되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홍규도 어쩔 수 없었어’라는 말을 들도록 의도했던 것”이라면서 “그가 노렸던 것은 ‘청백리 홍규’라는 이

름조차도 버리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청렴이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덧붙인 것이라면서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공직자들은 청렴성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육감은 대전과 광주 등 도내 인접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도교육청, 지역사회 협치 강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맞잡고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7일 5층 정책회의실에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근석)를 개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역교육 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마을교육생태계란 지속가능한 마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 추진위원회와 추진지원단을 총 11명으로 꾸리고 시·군 지역에서는 지역추진단을 구성해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알맞은 마을교육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의회에서 2019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과 방과후마을학교 사업 성과내용을 공유하고, 2020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과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마을교육생태계 체계 및 예산지원 ▲마을교육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204개 기관) ▲연수 및 컨설팅 추진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최근 발표된 제1회 문화재 수리 기능자에 대거 합격했다

전북대 한옥 교육생 11명 ‘문화재 수리 기능자’ 합격

문화재돌봄사업단 8명 · 한옥인력양성사업단 3명

전북대학교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최근 발표된 제1회 문화재 수리 기능자에 대거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 문화재돌봄사업단은 한식미장, 한식목공(대목수), 실측설계사보 등의 분야에서 8명의 직원이 자격을 취득했고, 한옥인력양성사업단은 소목, 문화재실측 등에서 3명이 합격했다.

이중 대목수 자격증은 우리나라 돌봄사업단 직원 중 유일하게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예초작업 등의 일상관리 뿐만 아니라 기와 보수, 벽체 보수 등의 경미 수리를 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전

문성 강화는 필수조건이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한식미장, 한식목공 등의 자체 교육 뿐 아니라 사내 동아리를 구성해 휴일에도 함께 모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했다.

이로써 전북대학교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총 9명이 돼 문화재 돌봄에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 수리 기능자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 한식미장공, 조경공 총 24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남해경 사업단장은 “직원과 교육생 여러분들이 사업단 전문화를 이루겠

다는 목표를 갖고 매진해 이룬 뜻깊은 성과”라며 “하반기에도 교육 및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마음가짐과 더불어 업무 능력을 갖춘 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문화재 돌봄사업단은 문화재청의 복원기금과 전라북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선정된 3년제 전북 서부권 문화재 돌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도내의 지정 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의 주변 잡초제거, 청소, 환경정비와 같은 일상관리와 벽체 보수, 기와 보수, 담장 보수 등 경미한 부분 보수 작업을 하며 문화재 보존에도 힘쓰고 있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19 특별 장학금”

전북대, 등록금 10%... 1인당 최대 19만6000원

전북대학교는(총장 김동원)는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약 한 달여간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회장 이원석) 간 협의에 따라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학기에 학생들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 재학생 모두에게 납부한 금액의 10%를 지급하며, 1인당 평균 납부금 196만원의 10%(19만6천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이에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10%이하던 경우에는 전액을, 19만6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19만6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학기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2학기에 등록하는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2020년

8월 졸업생은 직접 지급하고, 2학기 등록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으로 처리 *2학기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복학 시 지급 *2020년 1학기 내에 자퇴하거나 제적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전북대학교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은 약 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 12년 간 등록금 동결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긴급 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 2020년 8월 경 추경을 통해 지원 계획을 확정한다.

또한 전북대는 이번 재난 장학금 외에도 학생들의 복귀 후생을 위해 모든 강의실에 공기 청정기 설치(총 5억 원) 및 전체 학생의 책갈신 교체(총 22억 원) 하고, 2021년에는 국고지원시설비로 약 400억 원 규모의 학생 스포츠 복지센터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학·연 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구축사업’ 원광대, 도내 유일 컨소시엄 기관 참여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2020년 ‘학·연 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구축사업’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컨소시엄 기관으로 참여한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주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 기술의 기술사업화 협력 선도모델 구축’ 과제에 참여하는 원광대는 호남권 주요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한 인공지능(AI) 집적연구사업복합단지 특구 구축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인공지능 연구소·기업과 국제협력체계 구축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전략·특화산업을 연계한 지역혁신형 융합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 과제로 세우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 유망기술에 이전하여 사업화, 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특히 학·연 협력체계 기반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융합기술 특화된 구축,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등 대형·핵심 기술사업화 선도 사업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원광대가 추진해온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기술은 정부의 인공지능산업 집중 육성전략과 발맞춰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스마트 공장, 관제시스템, 이동형 교통정보 시스템 관련 인공지능 융합기술사업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 견인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맹수 총장은 “원광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광주·전남 지자체 및 지역민들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통한 신인생 유지 노력과 광주지방병원 및 장흥통합병원의 향후 사업추진 등에 본 사업의 선정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최병민 R&D지원실장 및 대학기술이전센터장은 “원광대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유망 지식재산을 발굴해 사업화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이번 성과는 호남권 주요 대학 및 연구소가 추진하는 사업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참여함으로써 원광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관련 연구 인력의 활동무대 다변화 등 향후 대학 정책추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환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